先秦時代의 婦人科疾病의 認識에 대한 硏究

大田大學校 醫史學敎室

張溶薰· 金容辰

<內容摘要>

關於先秦時期對婦人科疾病認識的硏究

通過對先秦時期婦人科疾患的硏究, 得出如下結論:

婦人科疾病最早在甲骨文卜辭中記錄了難産和乳癰, 其內容以難産爲主. 而且相關疾病的診斷, 治療及預後, 均根據神靈來提示, 所以神秘主義的巫術性要素較强. 在西周時期詩歌集詩經中所記錄的婦科疾病, 有無子和難産等病, 但是沒有關於治療難産的記錄, 而無子的治療借助了巫術之力. 先秦時期亦可見到對解剖術的記錄, 所以不能排出應用腹部切開進行助産的可能性. 但是不能視其爲治療難産爲主要目的之手段, 而是爲了說明偉人之出生, 認爲神話的要素起的作用較强. 醫學書籍中, 最早記載婦人科疾病的是馬王堆醫書中的五十二病方. 此書中記載了類似於現代醫學中破傷風的疾患嬰兒索痙, 并在治療方面記錄了外治法, 而未對內治法進行記錄. 并在胎産書中, 論述了妊娠和出産的生理和衛生, 以及辨別胎兒性別的方法. 至內經時期, 已形成了對月經病, 帶下病, 妊娠病及婦科雜病等的病名, 病因, 症狀和治療的論病模型體系. 該體系對後世婦科疾病的表現形式, 以及對臨床各科疾病的表現形式, 均給與了很大影響. 內經中對婦科疾病的病因未言及鬼神之說, 而客觀地探究了病因, 對外因主要以天人相應的觀點, 强調了氣候變化的致病作用. 對內因以臟腑經絡理論爲依據, 强調了肝心脾腎及任督二脈的功能失. 另外, 對房勞損傷和情志失調亦給與了重視. 在情志失調上較强調心的功能失調, 此觀點與後世重視肝的功能之觀點有區別, 而且認爲房勞太過傷肝之觀點, 與後世傷腎之觀點亦不同. 內經在婦科疾病的診斷方面, 仔細敍述症狀的同時, 還對體徵進行了檢查. 通過望聞問切四診合參推測豫後, 并根據症狀進行了鑑別診斷, 還施行了面王之望診. 在治療方面, 提出了'新産及大血之後'有'不可瀉'的治療禁忌, 在腸覃和石瘕上提示了'可導而下', 并且不使用湯藥治療和鍼灸治療, 而期待自愈之觀點.

Ⅰ. 緖 論

고대의 사람들에 있어 婦人科疾病은 女性의 生命을 威脅하는 중요한 疾病으로 認識되었다. 『漢書·外戚傳』에 大將軍 霍光의 夫人이 "婦人免(娩)乳大故, 十死一生"[1]이라 하였으니 漢代의 귀족 중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존환경이 열악한 원시사회에서 여성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며, 아마도 여성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江蘇邳縣 大墩子 新石器時代 墓葬의 조사를 근거로 보면 199구의 人骨 중 14~23세가 21구인데 그 중 남성이 8구, 여성이 13구였으니 이러한 숫자의 차이는 婦女의 婦人科疾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타 遺址 중에서도 여성이 難産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으니 山頂洞에서 출토된 7구의 人骨化石 중 1구는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産母腹中의 胎兒였다. 또한 甘肅 永靖 大河莊 遺址 중 一座의 成人과 嬰兒가 합장된 묘가 있는데 嬰兒의 골격은 이미 부패되어 있었다. 이상의 자료로 보면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孕産病을 많이 앓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原始文化遺址에서 출토된 砭石과 無孔骨鍼은 원시인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료기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고고학자나 醫史學家들이 견해는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 上古時代 砭石의 용도에 대해 『素問·異法方宜論』에서는 "東方之域 …… 其病皆爲癰瘍, 其治宜砭石"[2]이라 하였으니 이를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李經緯는 "하나는 化膿性感染의 膿腫을 치료하는 것이고, 하나는 石으로 病을 刺한다는 것은 穴位를 鍼刺하는 鍼灸療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3]라고 인식하였고, 傅維康은 "예리하고 첨예한 石片을 사용하여 膿疱를 절개하거나 혹은 신체의 일정 부위를 淺刺하여 治病의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4]으로 인식하였으니 구체적으로 熨燙, 按摩, 癰瘍을 절개하거나 刺하여 瘀血을 瀉하는 등의 수단으로 보았다. 이는 古代부터 婦人科疾患의 治療가 日常生活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婦人科疾患은 인류의 역사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疾患으로 그 治療方法에 대하여서도 古代부터 언급되어 왔다.

이에 筆者는 先秦時代부터 『內經』에 이르기까지의 婦人科疾患에 대하여 硏究하여 얻은 바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

1) 漢·班固 :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59, p. 3966.

2)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80.

3) 李經緯, 李志東 : 中國古代醫學史略,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2.

4) 傅維康 主編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 6.

Ⅱ. 婦人科疾病에 대한 原始時代의 기재

원시사회 말기부터 사회생산력 발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자 생산품이 남게 되어 상품의 교환과 사유제 탄생의 기초를 이루었다. 대략 기원전 2,200년을 전후로 중국은 계급사회로 진입하여 중국역사상 夏, 商과 같은 노예왕조가 출현하였으며, 기원전 11세기에 이르러 商朝가 멸망하고 周朝가 건립되었다. 成康昭穆의 四王이 성대를 이루다 幽王에 이르러 쇠망하게 되었으며, 기원전 770년 周平王이 洛陽으로 천도하고서 대략 300년 동안 제후들이 쟁패하는 春秋時代가 되었다. 이러한 2,000년의 기간이 고대 중국에서는 원시상태에서 文明史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이 시기 동안 생산력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수공업과 상업이 모두 비교적 세밀하게 분업되었으며, 더욱이 文字, 天文, 歷法 및 조기의 宗教意識, 醫學에 대한 哲學思想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1. 甲骨文 중 婦人科疾病과 관련된 記載

이른 바 최초의 문자 기재는 商代의 甲骨文卜辭이니 여기에서 당시 사람들의 婦人科疾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說文解字』 중 小篆의 '疾'字는 로 金文의 에서 演變하였다. 金文은 곧 甲骨文 중의 (『乙』6849)에서 演變한 것이며, 甲骨文 중의 (『鐵』5, 3) 또는 (『燕』863)이다. ''과 ' '은 '人'과 '床'으로 중간의 세 점을 郭沫若은 "이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 發汗하는 形"[5]으로 인식하였으며, 胡厚宣은 이를 '人體流血'[6]로 인식하였다. 林乾良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婦好不彳止疾'(『後』2, 11, 8)의 疾은 으로 사람의 형상이 돌출되어 大腹이 평평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게다가 유관한 사람에게 貞問한 바 이미 결혼한 婦女로 孕婦의 疾病을 貞問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733에 字가 있으니 大腹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서도 腹中에 一點이 있으니 이는 胎兒를 표시하는 것이며, 비록 床 위에 붙어있는 병태이지만 汗點이 없으니 孕婦와 유관한 疾病인 것이다. 이 외에도 陳 102에 이 있어 女가 人으로 바뀐 것으로 婦女의 疾病과 유관함을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이다."[7]라 하였으니 이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전문적으로 婦人病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어졌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부인의 질병과 일반인의 질병 사이에 모종의 구별이 있음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류의 婦人病에 대한 개념과 婦人科 疾病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胡厚宣의 고증을 근거로 살펴보면 유관한 婦人疾

---

5) 郭沫若 : 殷契粹編, 北京, 科學出版社, 1965. p. 64.

6) 胡厚宣 : 殷人疾病考, 學思, 1943, (1) :

7) 林乾良 : 醫學文字源流論(一) — 疾病論, 中華醫史雜誌, 1984, 14(4) : 197.

病의 卜文에 産育之疾을 묻는 것이 있고, 역시 疾病의 유무를 묻는 것도 있어 婦人科 疾病에 속하는 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胡厚宣은 '婦人病'이라 칭하는 이유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 중 고유하거나 혹은 보통의 病症이지만 婦人에게만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른 바 婦人病이다."[8]라고 명백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인식으로 婦人科 疾病이라 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은 李良松의 고증에 근거하면 "甲骨文 중에 수재된 懷孕 및 出産에 관련된 卜辭는 1,000餘片, 3,000餘條가 된다."[9]고 하였으니 이는 당시 孕育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卜辭가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여 受孕의 여부, 生男이나 生女 및 産期의 예측을 예상하였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들은 疾病史의 내용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진정으로 婦女疾病에 영향을 미친 것을 産病으로 확실히 긍정하기는 어려우니 "癸亥卜, 吉殳貞, 婦好冥(娩), 其女力(男孩)? 亻壴(艱), 囗(死)"(『存』2, 450)와 같은 것이다. 李良松은 이를 부인이 장차 분만하려할 때 그녀가 남아를 낳을 지의 여부를 점을 쳐 물어 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인이 難産하게 되면 嬰兒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다른 저서 중 '亻壴'字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이 부동하거나 혹은 이를 '隹' 즉 女兒로 해석하기도 하였지만 '婦好難産'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胡厚宣의 고증을 근거로 보면 이 외에도 産育疾病에 관하여 두 조문의 卜辭가 있다. 첫 번째는 "貞 : 子毋其毓, 不囗?"(『簠』雜69)인데 胡厚宣은 "이는 孕期가 오래 지났거나 혹은 孕婦가 분만하려 할 때 병을 얻은 것이다."라고 인식하고서 卜辭 중 아울러 '亡疾?'이라 묻지 않은 것에 근거하여 '不死?'라 물었으니 응당 이는 후자인 것이니 병을 얻은 바는 難産이라 하였다. 이른 바 '子毋其毓'의 뜻은 바로 '영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니 이런 까닭에 難産의 예후를 점을 쳐서 물어본 것이다. 두 번째는 "乙丑卜, 貞 : 婦爵育, 亡疾?"(『乙』8898)이니 胡厚宣은 "婦爵은 武丁의 妃로 이는 育子하는데 生産의 병이 있는 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生産의 病'에서 가장 큰 가능성은 바로 難産이니 당시에도 이미 難産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難産 후의 결과 또한 이처럼 엄중한 것으로 사람들이 懷孕에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甲骨文 중 이러한 종류의 難産에 대한 두려운 심리를 반영하여 나타낸 卜辭는 실제로 하나 둘이 아니니 "丙申卜, 貞 : 婦好[illegible](身), 弗氏(氐)婦囗(死)?/貞 : 帚(婦)好[illegible](身), 其氏(氐)帚(婦)囗(死)?"(『乙』6691)와 같은 것으로 응당 이런 상태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懷孕하고서 생사를 묻는 것은 일련의 妊娠期 병태가 나타남으로 인한 것이며, 難産의 두려움에 대한 일종의 순수함의 표현이다. 당시의 열악한 사회환경과 원시적 의료수준으로 인하여 難産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모두 높은 것이었다.

難産을 제외하고도 甲骨文 중에서 婦人科 疾病을 살펴볼 수 있으니 乳癰과 같은 것으

---

8) 胡厚宣 : 殷人疾病考, 學思, 1943, (1)

9) 李良松 : 甲骨文化與中醫學,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4, p. 85.

로 즉 卜辭 중의 '奶執'이니 "貞 : 午 ß(御)婦印乃(奶)執?"(『粹』1241)과 같은 것이다. 이 조문은 婦印奶執의 병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를 점을 쳐 물어보는 것이다. '奶執'이 현재의 어떤 병 인지는 卜文이 매우 간단한 까닭에 후인의 추측에 근거하여야 한다. 비교적 타당한 설명에 의하면 奶執은 바로 乳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설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丙午卜, 爭貞 : 黃尹史(祝)女魚不(死)? 才(在)丁家. 𠂤(有)子."(『明』287)를 근거로 이 조문을 살펴보면 妊娠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甲骨文 시대는 巫術이 성행한 殷商 시대로 사람들이 많은 자연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많은 자연재해를 모면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까닭에 사람들은 일종의 초자연적 힘을 지닌 신령이 주재하는 것을 긍정하게 되었다. 신비로운 巫術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탄생되었으며, 신령과의 대화를 이용하여 신령의 도움을 구하였다. 노예를 주로 한 계급에서는 통치의 요구가 필요하였으며, 의식의 강화가 있어야 했기에 巫術이 더욱 성행하였으니 "일상생활에 있어 대소사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일에 점을 쳤었고, 거의 매일 점을 쳤으니 風雨의 유무, 연령의 壽夭, 출입의 길흉, 전쟁의 승부, 질병의 경중, 부인의 생육에 점을 쳐서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10]고 하였다. 같은 양상으로 당시에는 難産類의 婦人科 疾病의 症狀과 危害에 대해 이미 사람들이 볼 수 있었지만 그 成因이나 처리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였던 까닭에 이 甲骨文 중에는 婦人科 疾病의 診斷, 處理, 豫後推測 등에 있어서는 모두 巫術 정서가 농후하게 퍼져 있었다. 사람들의 婦女疾病에 대한 인식이 占卜의 卜辭에 나타나 있으니 진단의 확립, 처리의 수단 및 예후의 추측 등을 모두 신령의 계시에 의지하였다.

"乙丑卜, 貞 : 婦爵育, 亡疾?"(『乙』8898) 및 "□丑卜, 王□(貞)□(帚)鼠𠂤(有)疾?"(『前』6502) 등과 같은 卜辭로 설명하면 당시 婦人病의 진단을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에 근거하여 婦人이 得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하였으며, 그런 연후에 占卜하여 신령으로부터 결단을 내렸었다. 예후의 추측 또한 마찬가지 형태였으니 "貞帚(婦)好不彳止疾?"(『後』2, 11, 8) 및 "貞 : 黃尹史(祝)女魚不(死)?"(『明』287)로 살펴보면 앞의 조문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인지를 묻는 것이고, 뒤의 조문은 죽음을 묻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미 婦女의 서로 다른 질병의 부동한 예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런 연후에 신령에게 결단을 구하였다.

치료에 관해 비록 『山海經』에서 上古 各巫의 "皆操不死之藥以距之"[11]라 말하고 있지만 婦人病의 甲骨文卜辭와 관련하여 用藥하여 질병을 치료한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며, 심지어 치료의 卜辭조차도 매우 적다. 위에서 말하였던 "貞 : 午 ß(御)婦印乃(奶)執?"의 조문에서 보듯 치료 또한 占卜에 의해 신령에게 구하여 치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甲骨文에서 인식한 가장 명확한 婦人科 疾

10) 傅維康 主編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 24.

11) 『山海經·海內西經』, 『百子全書』本 參照,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病은 難産임을 알 수 있으며, 나타나는 현상에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생은 반드시 生, 長, 老, 死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바 婦人科 疾病 중 孕産病에 있어 難産은 실제로 다른 어떤 질병보다 더욱 쉽게 보이는 것이다. 婦人科 疾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難産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婦人科 疾病에 대한 원시시대 사람들의 인식은 出産에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현상은 殷商의 甲骨文化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며, 심지어는 진정한 의학저서가 출현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2. 出産과 관련된 疾病 및 藥物의 文獻記載

西周에서 春秋時代에 이르기까지 자연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현저히 발전하였다. 더욱이 天文, 曆法 방면에 있어 큰 진보를 이루어 사람들의 자연과 종교사상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여 天命, 神鬼 숭배에 대한 동요가 나타났고, 일련의 소박한 唯物主義 및 辨證思想이 나타나게 되었다. 질병의 인식에 대해서도 비록 巫術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神秘隱詭한 迷信의 정서에서 이미 뚜렷하게 인류의 지혜가 빛나게 되었다.

西周時代의 생산생활과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詩歌總集인『詩經』에는 后稷의 모친인 姜嫄이 어떻게 懷孕하여 后稷을 出産하였는가에 대한 一段의 기재가『大雅·生民』에 나타나 있으니 "厥初生民, 時維姜嫄. 生民如何, 克禋克祀, 以弗無子. 履帝武敏, 歆攸介攸止. 載震載夙, 載生載育. 時維后稷, 誕彌厥月. 先生如達, 不坼不副, 無災無害."[12]이라 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 중에는 두 가지 婦人科 疾病을 찾아볼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은 '無子'이고,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은 '難産'이다.

'克禋克祀, 以弗無子.'의 구절을 살펴보면 姜嫄은 원래 不孕을 앓고 있어 不孕의 질환을 치료하고자 丈夫와 神靈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태도가 공경스럽고 행동이 민첩하여 신령을 감동시킨 까닭에 姜嫄에게 복이 내려 懷孕하여 得子하게 되었다. 이 詩歌의 형식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懷孕 과정의 묘사는 美麗怪詭한 신화적 색채로 가득 차있다. 질병을 기록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懷孕의 원리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詩歌의 후반부는 姜嫄의 懷孕이 晩期가 되는 것과 分娩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록 后稷이 初産兒로 分娩이 순조로웠지만 마치 작은 양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조금도 곤란하지 않았으니 姜嫄은 한 점의 손상도 없었다. 이 詩歌의 문자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오직 '不坼不副'의 구절에 대해 후인의 이해가 다른 점이 많아 '坼副'를 腹部切開出産類의 수술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는 타당성이 결여된 듯싶다. '坼副'의 의미에 대해『漢·毛亨傳』에서 "不坼不副, 無災無害, 言易也."라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旣坼旣副'하는 것으로는 바꿀 수 없으니 毛亨傳에서는 일반적 분만 상황을 "凡人在母, 母則病. 生則坼副, 災害其母, 橫逆人道."라고 명백히 서술하였다. 唐代의 孔穎達은 이를 해석하여 "婦人之生首子, 其産多難. 此后稷雖是最先生者 …… 其生之時, 不坼割, 不副裂, 故其母無災殃, 無患害, 以此故可美大也

12)『毛詩正義』,『十三經注疏』參照, 卷17, 世界書局, 1935.

."[13]라 하였으니 이른 바 '坼副'는 '其産多難'을 가리키는 것이며, 初産婦에서는 매우 흔하게 보이지만 '不坼不副'한 것이니 적게 보였다는 것이다. 원래 詩歌에서 '不坼不副, 無災無害'라 표현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웠음을 표현하는 심리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곧 腹部切開出産手術 즉 帝王切開術이 최근에는 보통의 수술이지만 대다수의 初産婦에게 腹部切開出産手術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물며 西周時代에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坼副'를 腹部切開出産이라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객관적인 현실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을 初産婦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해를 면하기 어려워 마땅히 분만과정 중 産門 및 會陰의 撕裂損傷이 나타날 수 있으니 '坼副'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런 破裂損傷으로 생각할 수 있다. 毛傳孔疏說은 이러한 정황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와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詩歌로부터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미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初産婦의 難産發生率이 經産婦보다 높고 難産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결과는 外陰 破裂인 것이다.

不孕에 관하여 『大雅·生民』의 文字에서 살펴보면 당시의 병명은 '無子'였으며, 처리방법도 매우 원시적이어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 보우를 구하였으니 당시 질병을 해결하는 문제는 巫術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련의 婦人科를 토론하는 내용의 문장이나 서적 중에는 작자가 인용한 『周易·艮』의 "婦三年不孕"[14] 및 『周易·屯』의 "婦孕而不育"[15]이 있어 질병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설은 모두 異常生活 상태에서의 不孕과 不育으로 건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 정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難産에 관한 또 다른 史實형식의 기재가 있으니 『左傳·隱公元年』에 "莊公寤生, 驚姜氏, 故名曰寤生, 遂惡之."[16]라 하였으며, 『史記·鄭世家第十二』에서도 이에 대한 일이 기재되어 있어 "武公十年, 娶申侯女爲夫人, 曰武姜. 生太子, 寤生, 生之難. 及生, 夫人弗愛. 後生少子叔段, 段生易, 夫人愛之."[17]라 하였으니 鄭武公의 夫人 武姜이 難産하였음을 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문제는 왜 '寤生'이라 하였을까 이다. 『左傳·隱公元年』 原注에서 "寐寤而莊公已生, 故驚而惡之."라 하였으니 孔穎達에 이르기까지는 이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였지만 이는 '生之難'의 뜻과는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寐寤하여 태어났다면 아이가 이미 태어난 뒤에 깨어난 것이니 이는 出産의 고통이 꿈에서 놀라 깨어나게 하였다고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후세에는 '寤生'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逆生으로 淸代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豫部』에서 "寤, 仮借爲牾, 足先見, 逆生也."[18]이라 하였으며,

---

13) 『毛詩正義』, 『十三經注疏』參照, 卷17, 世界書局, 1935.

14) 『周易正義』, 『十三經注疏』參照, 卷1, 世界書局, 1935, p. 19.

15) 『周易正義』, 『十三經注疏』參照, 卷1, 世界書局, 1935, p. 63.

16) 『春秋左傳正義』, 『十三經注疏』參照, 卷1, 世界書局, 1935, p. 63.

17) 漢·司馬遷 : 史記, 『二十五史』本, 上海古籍出版社, 1986, p. 210.

18) 淸·朱駿聲 : 說文通訓定聲, 武漢, 武漢市古籍書店, 1983, p. 392.

다른 하나는 생후에 嬰兒가 悶絶하여 울지 않은 것으로 곧 新生兒窒息이니 그 원인은 비교적 많아 臍帶繞頸 또는 足, 臀先露 등의 異常胎位 등으로 인해 출산 과정이 길어진 상태이다. 이들은 모두 新生兒窒息을 야기하니 明代 萬全은 『萬氏女科』에서 "子欲下時, 母護其痛, 傴僂傾側, 兩足不開, 扭夾兒頭, 氣不得伸, 生下悶絶不啼, 謂之寤生."[19]이라 하였다. 이러한 두 종류 '寤生'은 모두 難産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모두 産婦에게 많은 고통을 야기한다. 姜氏의 '寤生'은 足이 먼저 보이는 것으로 嬰兒가 悶絶하여 울지 못하는 難産이 걱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하나만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당시 사람들이 구체적인 유형의 難産에 대하여 命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 이와 같은 유형을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기록들 중에는 당시 難産의 처리에 대해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無子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보우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을 활용하였음이 뚜렷하게 보이니 당시 질병을 해결하는 문제는 巫術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山海經』에 기록된 出産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다. 『山海經·南山經』에 "又東三百七十里, 曰柢陽之山. 其陽多赤金, 其陰多白金. 有獸焉, 其狀如馬而白首, 其文如虎而赤尾, 其音如謠, 其名曰鹿蜀, 佩之宜子孫.", 『山海經·西山經』에 "又西三百二十里, 曰嶓冢之山, …… 有草焉, 其葉如蕙, 其本如桔梗, 黑華而不實, 名曰骨蓉, 食人使人無子." 『山海經·中山經』에 "又東十里, 曰青要之山. …… 是山也, 宜女子. 畟水出焉, 而北流注于河. 其中有鳥焉, 名曰鴢, 若狀如鳧, 青身而朱目赤尾, 食之宜子." 및 "又東二十里, 曰苦山 …… 其上有木焉, 名曰黃棘, 黃華而員葉, 其實如蘭, 服之不字."[20]라 하였으니 이러한 약은 絶育과 不孕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魯迅은 일찍이 『山海經』이 上古의 巫書라 하였는바 실제로 많은 精怪鬼神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大疫을 야기하는 많은 鳥獸가 여러 종류 나타나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에 기재된 약물에 대해 그 당시와 그 이후의 醫藥書籍間의 기재에는 구별이 있다. 巫術的 정서로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기재된 약물 또한 극히 巫術的 색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山海經·中山經』의 鴢鳥條의 뒷부분에서 "又東十里, 曰騩山. 其上有美棗, 其陰有王雩琈之玉. 正回之水出焉, 而北流注于河. 其中多飛魚, 其狀如豚而赤文, 服之不畏雷, 可以御兵."이라 하였으니 이는 특별히 巫術的 색채가 농후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絶育과 宜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당시 사람들의 用藥經驗을 반영한 것이고, 둘째는 당시 사람들의 일종의 願望을 반영한 것이니 바로 일종의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이런 出産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당시 사람들의 '無子' 및 '不字'類 질병의 病因을 추측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不孕하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였음을 반영하는 것

19) 明·萬全 : 『萬氏女科』, 『萬密齋醫全書』本參照, 卷3, 淸·忠信堂刻本.

20) 『山海經』, 百子全書, 第一, 第二, 第五,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8.

이다. 馬林諾夫斯基의 『文化史』에서는 “物과 物의 비밀스러운 교감관계는 멀리서도 발생하는 작용이 있다는 가정이 巫術의 기초가 된다.”[21]고 하였다. 『山海經』에 사용된 약을 살펴보면 이러한 종류의 교감관계 의식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骨蓉이 ‘黑華而不實’한 것을 먹으면 이 靈性이 사람에게 전이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無子케 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릇 宜子케 하는 鳥獸는 모두 赤尾麗形한 것으로 吉祥의 상이다. 당연히 이러한 기재는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이미 ‘不字’, ‘無子’와 같은 양상의 질병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한이 지나도 출산하지 않는 것이다. 『左傳·僖公十七年』에서 “惠公之在梁也, 梁伯妻之. 梁嬴孕過期, 卜招父與子卜之, 其子曰 : 將生一男一女.”[22]라 하면서 ‘孕過期’를 긍정적으로 제시하였으니 당시 孕期의 날짜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인식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가능하다 할 수 있으니 甲骨文卜辭 중에는 産期의 卜算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産期의 추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疾病史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先秦時代에는 기한이 지나도 출산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두려워했다는 점이며, 신비적인 색채를 지닌 일종의 異象이면서 또한 일종의 吉象으로 보았으니 상술한 原文 중 一男一女를 얻는다는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山海經·海內經』에 “炎帝之孫伯陵, 伯陵同(通)吳權之妻阿女緣婦. 緣婦孕三年, 是生鼓延殳. 始爲侯, 鼓延是始爲鍾, 爲樂風.”[23], 『拾遺記』에 “狄乃懷卵, 一年而有娠, 經十四月而生契.”[24]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越絶書』에는 商幽王의 출생이 懷孕 11개월이 지났다고 되어있다. 이로 볼 때 기한이 지나도 출산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異人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징조로 보았던 것이다.

세 번째는 ‘坼胸’, ‘剖脇’과 腹部切開出産의 문제이다. 『吳越春秋·越王無余外傳』에서 “鯀娶于有莘氏之女名女嬉, 年壯未孳. 嬉于砥山得薏苡而吞之, 意若爲人所感, 因而妊孕, 剖脇而産高密.”이라 하면서 原注에 “高密, 禹所封國.”[25]이라 하였고, 『史記·夏本紀』 唐·張守節正義에 “帝王紀云 : 父鯀妻脩己, 見流星貫昴, 夢接意感, 又吞神珠薏苡, 胸坼而生禹. 名文命, 字密.”[26]이라 하였다. 이 두 조문은 大禹의 출생을 설명하는 것인데 ‘胸坼’, ‘剖脇’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坼’과 ‘剖’의 글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說文』에 “坼, 裂也.”, “剖, 判也.”, “判, 分也.”라 하였고, 段注에 “判, 半分而合者.”[27]라 하였으니 모두 裂開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大禹의 모친이 胸部나 혹은 脇部를 절개하고서야 大禹가 태어났다는 뜻이다. 만약 이런 종류의 ‘裂開’를 腹部切開出産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일

---

21) 英·馬林諾夫斯基, 費孝通 譯 : 文化史, 北京, 中國文藝民間出版社, 1987, p. 57.

22) 『春秋左傳正義』, 『十三經注疏』本參照, 世界書局, 1935, 卷5.

23) 『山海經』, 百子全書參照, 第十八,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24) 『拾遺記』, 百子全書參照, 第二,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25) 『吳越春秋』, 『四部叢刊初編』卷6 參照, 上海, 商務印書館, 1934, p. 44.

26) 漢·司馬遷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p. 49.

27) 清·段玉裁 注 : 說文解字段注, 成都古籍書店, 1981, p. 189.

수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기재를 早期의 文史著書 중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史記·楚世家』에 "吳回生陸終. 陸終生六人, 坼剖而産焉. 其長一曰昆吾; 二曰參胡; 三曰彭祖I …… "라 하였으며, 이 조문에 대해 宋代 裴駰의 集解에서 注하여 "簡狄胸部而生契."[28]라 하였다. 이상에서 기재된 몇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剖坼'의 부위가 모두 腹部가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剖坼하여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비상한 사람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기재된 것들에는 難産의 징후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甲骨文 중의 象形인 '孕'字는 바로 腹中有子의 字를 형상한 것이며, 周代에 이르러서는 婦女가 腹中孕子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 '剖坼而生'을 강조한 목적은 腹部를 절개하여 태아를 꺼내는 것은 難産解決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偉人이 태어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여인의 産門을 통하여 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婦女가 腹中孕子하였을 때 '坼', '剖'하는 부위가 腹部에 있지 않은 원인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기재는 바로『史記』로부터 제시된 것이니 司馬氏가 친히 견문한 바가 아니라 대부분 遠古의 전설로 신화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史實에 의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일종의 상상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니 사람은 産門 외의 별다른 곳을 통하여서도 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질병에 대한 인류의 인식 및 처리수단의 발전규율로 볼 때 복잡한 현재의 의학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매우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殷商 이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는바 당시에 이미 숙련된 수술법이 완전하게 실전되었다는 사실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坼', '剖'에 관한 전설로 보아 腹部切開出産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증거가 부족할 따름이다. 따라서 확실한 하나의 결론을 내리자면 설득력 있는 고고학 발굴이나 문헌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Ⅲ. 醫學의 觀點에서 바라본 婦人科 疾病의 始初

『史記』에서는 周元王 元年(기원전 476년)부터 기원전 221년 秦이 六國을 멸하기까지의 255년간의 역사가 戰國時期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諸雄이 패권을 다투는 와중에 전쟁은 계속되고 사회는 혼란하여 불안하였다. 그렇지만 쟁패의 결과 제후는 생산을 발전시키고, 인재 및 실력자를 널리 구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역사에 있어 '諸子蜂起, 百家爭鳴'을 이루었으며, 학술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도약하게 된 특별한 시기가 되었다. 비록 현존하는 이 시기의 의학저서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이들로부터 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의학이론의 기초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미 상대적으로 일정한 틀을 갖추었

28) 漢·司馬遷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p. 1690.

다. 婦人科 疾病의 인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의 임상관찰과 사유추리를 얻어 객관적인 연구와 탐색을 진행하였으니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세계를 바라보아 대자연이나 혹은 인체 자체에서 病因을 찾았고, 鍼灸, 藥物 등과 같은 진정한 의학수단을 이용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주의를 기울여볼 만한 것은 婦人科 疾病의 인식에 관하여서는 이미 産孕의 범주를 벗어나 月經과 帶下에 관한 문제 및 婦人科 雜病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早期의 의학저서 중에는 病名, 病因, 症狀, 治療의 형식으로 전개하여 서술한 비교적 완전하다 할 수 있는 論病模型을 갖추었다. 현존하는 의학저서 중 婦人科 疾病의 인식에 관한 기재는 비록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일련의 고귀한 내용들이 이미 실전되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예를 들면 『史記·扁鵲倉公列傳』에 "扁鵲名聞天下, 過邯鄲, 聞貴婦人, 卽爲帶下醫."[29]라 하여 扁鵲이 婦人科 疾病의 치료에 유능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帶下病을 치료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알 수 없다. 현재에 이르러 그 당시 사람들이 婦人科 疾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연구할 때는 현존하는 문헌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 당시의 실제 수준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당시에는 巫術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조기의 의학저서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더욱이 인식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巫術에 대한 신비주의 색채가 더욱 만연하기도 하였다.

1. 醫學病名의 출현과 論病模型의 창시

현존하는 최초의 의학저서를 과거에는 『內經』이라 하였지만 1973년 馬王堆 漢墓에서 의서가 출토된 이후에는 고증에 근거하여 『內經』에 비해 훨씬 일찍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長沙 馬王堆에서는 모두 11종의 의서가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婦人科 疾病과 관련된 病種이 대체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五十二病方』에 기재된 하나의 비교적 완전한 婦人科 疾病은 嬰兒索痙으로 婦女가 出産할 때나 혹은 産後의 痙病이다. 여기에서는 "嬰兒索痙 : 索痙者, 卽産時居濕地久, 其肯直而口拘, 筋攣難以伸, 取封埴土冶之, □□二, 鹽一, 合撓而蒸, 以遍熨直肯攣筋所. 道頭始, 稍□手足而已. 熨寒□□復蒸, 熨干更爲."[30]라 하였으니 馬繼興은 이를 "古人은 그 病因을 胎兒가 일으킨다고 인식한 까닭에 嬰兒索痙이라 칭하였다."고 이해하였으니 원문으로부터 살펴보면 그 病因은 '産時居濕地久'한 것이요, 症狀은 肌肉强直, 口噤, 筋脈攣急하여 屈伸이 어려운 것이다. 外治法을 취하였으니 封埴土(재질이 부드러운 일종의 黃色粘土[31])와 鹽을 취하여 고르게 갈아 잘 섞은 후 蒸熱하여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반복하여 병든 婦女의 강직된 肌肉과 攣急한 筋脈을 溫熨하였다. 이

29) 漢·司馬遷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p. 2793.

30) 五十二病方,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參照,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368.

31) 馬繼興 :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369.

외에도 이 책에 기재된 일련의 婦女의 성욕을 격발하고자 하는 목적의 外用藥方이 있으니 비록 病名은 없지만 性冷淡을 치료하는데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陰陽十一脈灸經』에는 乳痛과 婦人少腹腫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인체의 체표부위로부터 명명된 것이다. 원문에서 "陽明脈 '其所産病 : 顔甬(痛), 鼻月九(鼽), 頷(頜)頸甬(痛), 乳勇(痛), 心與胠甬(痛), …… 爲十病.', 厥陰脈 '是動則病 : 丈夫則隤(癩)山(疝), 婦人則少腹腫, 要(腰)甬(痛)不可以俛(仰), 甚則嗌乾, 面疵, 是厥陰之脈主治.'"[32]라 하였으니 이를 살펴보면 이들은 일련의 經脈病 중 두 종류로 전문적인 논술이 없으니 비교적 간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胎山書』는 孕産의 생리와 위생 및 태아의 성별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비록 婦人科 疾病의 病名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는 求子와 관련된 논술도 있어 不姙의 치료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內經』에 이르러서는 婦人科 疾病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인체의 器官과 月經生理에 관해서도 점차 이해하였으며, 月經病과 帶下病 및 婦人科 雜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內經』에 나타난 婦人科 疾病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미 經, 胎, 産, 婦人科 雜病 등의 여러 방면에까지 서술하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月經病 : 月事衰少(月經過少), 月事不以時下(月經不調), 血枯不月(閉經), 血崩

妊娠病 : 重身九月而喑(子喑)

産後病 : 乳子病熱(産後發熱)

婦人科 雜病 : 腸覃, 石瘕, 少腹腫(癥瘕), 無子(不孕)

이상의 각 병은 『內經』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일종의 뚜렷한 疾病인 것도 있고, 전체를 포괄하고 있거나 혹은 간단하거나 혹은 상세한 病名, 病因, 症狀, 治療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것도 있으니 血枯不月, 重身九月而喑, 乳子病熱, 腸覃, 石瘕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단지 하나의 증상인 것도 있으니 月事衰少는 血枯經閉의 前期症狀이고, 月事不以時下는 腸覃의 특수한 症狀이다.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 血崩, 白淫, 少腹腫, 無子 등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명칭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모두 일종의 병리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즉 당시에는 하나의 독립된 병명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발전하여 하나의 병명을 이루게 된 기초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나타난 병명으로 살펴보면 이 때에는 질병의 명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체표위치의 속박에서는 벗어나 있었으며, 어느 정도 질병 본질에 대한 인

32) 陰陽十一脈灸經,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參照,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식이 있어 病名은 明淸時代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內經』은 비교적 완전한 이론체계를 갖춘 의학서적으로 그 중 婦人科 疾病에 대한 논술은 위에서 구별한 病種 외에도 馬王堆醫書의 논술에 비해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렇지만 매번 구체적으로 병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논술의 상세함과 간략함 및 체계화한 정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靈樞·經脈』에 "肝足厥陰之脈 …… 是動則病腰痛不可俯仰, 丈夫癩疝, 婦人少腹腫, 甚則嗌乾, 面塵奪色."[33]이라 한 내용과 馬王堆醫書 『陰陽十一脈灸經』의 논술과는 일맥상통하는 특징을 볼 수 있으니 현저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內經』에서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病種이 病名이나 혹은 症狀으로 나타나 있지만 때로는 病因이나 혹은 治法 혹은 豫後推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논술하였다. 그 중 가장 체계적으로 논술한 病種은 血枯經閉로 이미 病因, 症狀, 治療에 이르기까지의 論病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素問·腹中論』에 "帝曰 : 有病胸脇支滿者, 妨于食, 病至則先聞腥臊臭, 出淸液, 先唾血, 四支淸, 目眩, 時時前後血, 病名爲何? 何以得之? 岐伯曰 : 病名血枯, 此得之年少之時, 有所大脫血, 若醉入房中, 氣竭肝傷, 故月事衰少不來也. 帝曰 : 治之奈何? 復以何術? 岐伯曰 : 以四烏賊骨一藘茹二物幷合之, 丸以雀卵, 大如小豆, 以五丸爲後飯, 飮以鮑魚汁, 利腸中及傷肝也."[34]라 하였으니 이를 분석하면 病名은 血枯, 病因病機는 大脫血이나 혹은 醉入房中하여 氣竭肝傷한 것이며, 症狀은 胸脇支滿, 妨于食, 病至則先聞腥臊臭, 出淸液, 先唾血, 四支淸, 目眩, 時時前後血, 月事衰少, 或不來이고, 治法은 腸中 및 傷肝을 利하며, 方劑는 四烏賊骨一藘茹(丸)이고, 藥物은 烏賊骨, 藘茹, 雀卵, 鮑魚汁이며, 合藥 및 服藥法은 四烏賊骨一藘茹의 비율로 약을 배합하여 雀卵으로 이를 반죽한 후 小豆大의 丸藥을 만들어 매 5환을 식후 鮑魚汁으로 吞服한다.

이상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論病模型은 대단히 완벽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초 이론은 당시의 철학적인 내용을 차용하고 있으며, 병을 논술하는 이러한 방식은 매우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고, 더욱이 用藥組方, 合藥, 服藥의 경험은 반드시 임상에서 활용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內經』時代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인식은 이미 비교적 수많은 임상활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문헌자료로는 진실한 면모를 살펴보기 어렵다. 비록 『內經』에서 이 같은 婦人科 疾病을 완벽하게 논술한 것은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論病模型은 후세 婦人科 疾病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臨床各科 疾病의 표현양식에도 모두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2. 病因에 대한 인식이 鬼神 관념에서 탈피함

馬王堆醫書에 기재된 婦人科 疾病의 인식은 매우 작고 전문적인 질병을 논술한 것이 아닌 까닭에 전문적으로 病因을 말할 수는 없지만 『胎産書』에 있는 求子의 방법으로 이를 살펴보면 無子 혹은 少子病의 病因에 대해서는 이미 일련의 객관적인 인식이 있었다. 부

33)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5, p. 35.

34)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23.

부 쌍방이 모두 복약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은 不孕이 남녀 쌍방에게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신비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은 埋胞法에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 있다.

『內經』에서는 婦人科 疾病의 病因에 있어 귀신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李經緯는 『中國古代醫學史略』에서 "『內經』은 唯物論 사상으로 가득한 의학서적 이다. ……『內經』의 저자들과 『內經』시대의 의학가들은 이미 鬼神致病의 잘못된 점과 唯心迷信의 관념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었다."[35]라고 하였다. 『內經』에 언급된 婦人科 疾病의 病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鬼神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신비적 암시 또한 없었으니 이로 미루어 『內經』은 醫와 巫가 분리된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內經』에서 언급되어진 婦人科 疾病의 病因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情志

『內經』에서는 婦人科 疾病에 대한 情志失調의 致病作用을 중시하여 『素問·痿論』에서 "悲哀太甚, 則胞絡絶, 胞絡絶則陽氣內動, 發則心下崩, 數溲血也."[36]라 하였으니 悲哀가 太過하면 陽氣가 內動하여 心下崩을 發한다고 하였으며, 『素問·陰陽別論』에서는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37]이라 하여 心情이 憂鬱하여 發泄하지 못하면 脾胃의 運化機能이 손상되어 氣血化生의 근원이 결핍하여 閉經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주목해볼만한 것은 『內經』에 언급된 婦人科 疾病의 致病作用에 대한 情志失調에 있어서는 비교적 心의 能失調를 강조한 것으로 이는 후세에 비교적 肝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 誤治

『素問·評熱病論』에서는 虛한데 鍼刺하여 瀉法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鍼瀉를 잘못하면 閉經을 일으킬 수 있다 하였으니 "虛不當刺, 不當刺而刺, 後五日其氣必至. … …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屬心而絡于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也."[38]라 한 것은 誤治로 氣血逆亂이 야기되면 月經不通이 된다고 한 것이다.

3) 房勞太過

『內經』에서는 房勞損傷을 비교적 중시하였다. 『素問·腹中論』에 "病名血枯, 此得之年少之

---

35) 李經緯, 李志東 : 中國古代醫學史略,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4.

36)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47.

37)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53.

38)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196.

時, 有所大脫血, 若醉入房中, 氣竭肝傷, 故月事衰少不來也."[39]라 하였으며, 『素問·痿論』에 "思想無窮, 所願不得, 意淫于外, 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及爲白淫. 故『下經』曰 : 筋痿者, 生于肝, 使內也."[40]라 하여 모두 房勞太過의 損害를 언급하였으니 閉經 및 帶下病이 모두 房勞太過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목할 만한 것은 『內經』에서는 房勞太過하면 肝을 傷한다고 논하고 있지만 후세에는 腎이 傷한다고 한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의 '氣竭肝傷'의 조문과 뒤의 '筋痿者, 生于肝, 使內也'라 한 조문은 모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出血損傷

출혈은 血虛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흔히 볼 수 있다. 『素問·腹中論』에 "病名血枯, 此得之年少之時, 有所大脫血, 若醉入房中, 氣竭肝傷, 故月事衰少不來也."[41]라 하여 大出血 후에 經閉가 나타난다 하였다.

5) 惡氣惡血

惡氣, 惡血은 체내의 氣血運行不暢으로 인하여 局部에 氣血이 停留凝滯한 것을 말한다. 『靈樞·水脹』에 "腸覃何如? 岐伯曰 : 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榮, 因有所繫, 癖而內著, 惡氣乃起, 瘜肉乃生. 其始生也, 大如鷄卵, 稍以益大, 至其成, 如懷子之狀, 久者離勢, 按之則堅, 推之則移, 月事以時下, 此其候也."[42], "石瘕如何? 岐伯曰 : 石瘕生胞中寒, 寒氣客于子門, 子門閉塞, 氣不得通, 惡血當寫不寫, 衄以留止, 日以益大, 狀如懷子, 月事不以時下."[43]라 하여 惡氣, 惡血이 內停하면 腸覃과 石瘕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內經』에서는 또한 懷孕晩期의 특수한 생리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胞內胎兒의 압박으로 인하여 腎脈氣血運行이 不暢하면 舌不能言하는 子喑이 유발[44]되는데 이는 嬰兒가 출생한 후 腎脈氣血의 운행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이 病證은 자연히 소실된다고 하였다.

6) 任督脈機能失調

『素問·上古天眞論』의 月經生理에 대한 논술은 衝脈과 任脈의 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45]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內經』

---

39)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23.
40)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48.
41)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23.
42)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95.
43)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95.
44)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59.

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논술은 任督二脈의 機能失調를 비교적 중시하였으니『素問·骨空論』에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46], "此(督脈)生病 …… 其女子不孕, 癃痔遺溺嗌乾."[47]이라 하여 任脈機能失調는 癥瘕를 야기하고, 督脈機能失調는 女子不孕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7) 肝心脾腎虛弱

『內經』에는 內臟虛弱으로 인한 婦人科 疾病에 대한 논술이 비교적 많으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情志失調로 心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 血崩, 閉經을 일으키고, 房勞太過로 肝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 閉經, 帶下 등을 일으킨다고 한 것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素問·脈解』의 "厥陰所謂癰疝, 婦人少腹腫者."[48] 및『靈樞·經脈』의 "丈夫癰疝, 婦人少腹腫, 甚則嗌乾, 面塵奪色 …… 是肝所生病者."[49]는 모두 婦人科에 있어 腫瘤의 발생과 肝이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靈樞·邪氣臟腑病形』의 "腎脈 …… 微澁爲不月沈痔."[50]는 閉經의 발생과 腎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脾虛로 인한 婦人科 疾病은 주로 水穀을 運化하여 生氣血하는 기능과 관계가 있으니『素問·陰陽別論』에서 논한 血枯經閉의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51]과 같은 것이다.

8) 先天不足

이는 주로 天人相應의 관점과 관련이 깊다.『靈樞·邪客』에 "天圓地方, 人頭圓足方以應之 …… 地有四時不生草, 人有無子. 此人與天地相應者也."[52]라 하였으니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不孕의 症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이런 경우라면 아마 치료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9) 體內 陰陽平衡의 失調

『素問·陰陽別論』에 "陰虛陽搏謂之崩."[53]이라 하였으니 王氷은 "陰脈不足, 陽脈盛搏, 則內崩而血流下."라고 注하였다. 이는 體內의 陰陽平衡이 失調하면 陰虛陽亢하여 血崩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5)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4.
46)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320.
47)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321.
48)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72.
49)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35.
50)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16.
51)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53.
52)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113.
53)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56.

10) 外邪 感受

外邪는 六淫邪氣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寒邪를 중시하였다. 『靈樞·水脹』에서는 寒氣가 內侵하여 腸外나 혹은 胞中에 客하면 腸覃이나 石瘕를 야기한다 하였으며, 이 외에도 『內經』에서는 병리적인 상황 하에서 정상기후가 변화할 때 어떤 질병의 유인이 될 수 있다 하였으니 『素問·脈解』에 "厥陰者辰也, 三月陽中之陰, 邪在中故癲疝少腹腫也."[54]라 한 것은 肝臟失調하면 癲瘕의 병이 매 三月에 쉽게 발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內經』에서는 病因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였으며, 그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外因은 주로 天人相應의 관점과 관련이 깊어 婦人科 疾病에 대한 기후변화의 致病作用을 비교적 강조하였고, 內因은 주로 臟腑經絡 이론과 상관관계가 있어 肝心脾腎 및 任督二脈의 機能失調를 비교적 강조하였으며, 이 외에도 房勞損傷 및 情志失調를 매우 중시하였다. 동시에 같은 病因이라도 다른 상황 하에서 인체의 다른 부위에 작용하게 되면 不同한 疾病이 야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니 예를 들면 寒氣가 腸外에 客하면 腸覃이 되고, 胞內에 客하면 石瘕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같은 질병이라도 不同한 病因에 의해서도 야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니 예를 들면 情志失調, 誤治, 房勞過度, 氣血損傷, 寒邪感受, 惡血內停, 肝心脾腎의 機能失調 등은 모두 閉經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內經』에서는 각종 病因을 하나만 논술하지 않고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일어난다 하였으며, 각종 病因 간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심도 있게 서술하였다.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각종 病因이 상호 인과관계가 있어 질병의 발전을 야기한다고 하였으니 寒邪를 感受하여 腸外나 혹은 胞內에 客하면 이들은 모두 氣血의 運行을 阻碍하여 氣가 不通하고 血이 不行하여 瘀滯하므로 惡氣, 惡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情志失調 및 房勞太過 또한 內臟의 機能을 손상하여 諸症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각종 病因間의 이러한 불가분 상호관계는 또한 때로는 같은 조문에서 다른 病因을 논술하는 중 반복하여 출현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 婦人科 疾病의 診斷 및 治療의 始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의학저서가 출현하기 전 婦人科 疾病의 기재는 早期의 文史著作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의학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서가 출현하면서부터 婦人科 疾病의 診斷과 治療에 대한 논술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1) 馬王堆醫書 — 현존하는 최초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治療 記載

54)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72.

馬王堆醫書는 일찍 만들어진 책이기에 내용이 상당히 소박하며, 논술된 婦人少腹腫과 乳痛은 단지 病名일 뿐 診斷과 治療에 대한 기록은 살펴볼 수 없다. 嬰兒索痙에 대해서는 外治法을 제시하였을 뿐 內治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馬王堆醫書와 婦人科 疾病의 치료가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현존하는 자료로부터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출현한 진정한 婦人科 疾病에 대한 치료는 아마 馬王堆醫書 중『胎産書』에 나타난 求子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여기에서는 治療方法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는 일종의 養生法이라 할 수 있다. 無子病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만약 많은 아이들을 쉽게 출산한다면 다시 求할 필요는 없으니 이는 당연히 말하지 않더라도 이에 비유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이른 바 求子는 곧 無子에 대한 것이니 바로 不孕病의 치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괄하면『胎産書』중의 求子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반드시 擇日하여 교합하는 것으로 "禹問幼頻曰 : 我欲埴(殖)人産子, 何如而有? 幼頻合曰 : 月朔已去汁□, 三日中從之, 有子."[55]라 하였으니 월경이 끝난 후 3일 내에 房事를 행하라 한 것은 이 때가 受孕이 쉬운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說이 현재의 인식과는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대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男女雙方이 복약하는 것으로 "求子之道曰 : 求九宗之草, 而夫妻共以爲酒, 飮之."[56]라 하였다. 九宗之草는 一種의 약이자 또한 一類의 약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약인지는 고증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埋胞方法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소위 埋胞法이란 馬王堆醫書 중 비교적 특수한 내용으로『胎産書』에서 埋胞法을 제시하였고,『雜療方』에도 또한 埋胞圖가 있다. 埋胞法이 가리키는 것은 胎兒가 출생한 후 좋은 땅을 찾아 胞衣를 땅속에 묻는 것이다. 보통은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 하나는 胎兒가 健康, 聰明, 美色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후의 出産이나 多産 혹은 産男이나 産女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無子한 사람은 당연히 땅에 묻을 胞가 없겠지만 少子한 사람은 多産할 목적으로 埋胞法을 사용하였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求子法을 살펴보면 醫와 巫 양측의 영향을 받았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앞의 두 가지는 주로 사람의 成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마지막 방법은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비교적 농후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馬王堆醫書에서는 陰道給藥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 비록 당시의 목적이 병을 治療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종의 給藥하는 과정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內經』의 婦人科 疾病 診斷

『內經』에 언급된 婦人科 疾病의 診斷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다.

---

55) 胎産書,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參照,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780.

56) 胎産書,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參照,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811.

첫째, 症狀의 세밀한 서술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病機를 논술하였다. 이는 역대 婦人科 疾病을 診斷하는데 있어 매우 중시되는 특징이 되었으니 그 시작은 당연히 『內經』이었다. 예를 들면 『素問·腹中論』에서 血枯經閉의 病狀을 "病胸脇支滿者, 妨于食, 病至則先聞腥臊臭, 出淸液, 先唾血, 四支淸, 目眩, 時時前後血.", "月事衰少不來也."라 하여 그 증상의 서술이 아주 상세한 즉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를 보아도 이 證이 肺結核에 병발한 閉經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病機에 대해 살펴보면 『素問·陰陽別論』에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 『素問·評熱病論』에 "月事不來者胞脈閉也. 胞脈者屬心而絡于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也.", 『素問·腹中論』에 "病名血枯, 此得之年少時有所大脫血. 若醉入房中, 氣竭傷肝, 故月事衰少不來也."라 하여 閉經의 病機가 肝心脾 三臟의 不調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症狀의 세밀한 서술과 더불어 필요한 體徵을 검사하였다. 예를 들면 腸覃病과 같은 경우 症狀은 "其始生也, 大如鷄卵, 稍以益大, 至其成, 如懷子之狀, 久者離歲 …… 月事以時下, 此其候也."라 하고 그 體徵은 "按之則堅, 推之則移"라 하였으니 이 때 腹部를 觸診하여 확실한 診斷을 하려면 비교적 숙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望聞問切의 四診을 合參하여 豫後를 推斷하였다. 예를 들면 『素問·通評虛實論』에서 "帝曰 : 乳子中風熱, 喘鳴肩息者, 脈如何? 岐伯曰 : 喘鳴肩息者, 脈實大也, 緩則生, 急則死."[57]라 하였으니 그 중 '乳子中風熱'은 물어서(問) 안 것이고, '喘鳴'은 듣고서(聞) 안 것이며, '肩息'은 보고서(望) 안 것이고, '脈實大'나 '緩' 혹은 '急'은 만져보고서(切) 안 것이다. 『內經』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 중 脈象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적다. 이 조문에서 脈象을 사용한 의의 또한 婦人科 疾病을 診斷하고자 함이 아니라 豫後를 推斷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婦人科 疾病을 診斷하는 중 脈象의 사용은 매우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症狀을 대비하여 鑑別診斷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靈樞·水脹』에서 "腸覃如何? …… 月事以時下, 此其候也. 石瘕如何? …… 月事不以時下."[58]라 하였으니 만약 이러한 症狀鑑別에 의거하여 살펴본다면 病位의 不同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니 腸覃은 寒氣가 腸外에 客하여 月經은 阻碍하지 않으므로 月事以時下하는 것이며, 石瘕는 寒氣가 胞內에 客하여 月經을 阻碍하므로 月事不以時下하는 것이다. 『內經』에서의 이와 같은 疾病定位 특징을 강조한 것은 주의를 기울여볼만한 가치가 있다.

다섯째, 面王의 望診에 관한 내용이다. 『靈樞·五色』에는 面王의 望診으로 女子膀胱子處의 疾病을 診斷한다고 하였으니 望診의 내용에는 病理五色, 形態散搏, 位置左右가 포함되어 있다. "能別左右, 是謂大道.", "黃赤爲風, 靑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膿, 赤甚者爲血痛, 甚爲攣, 寒甚爲皮不仁, 五色各見其部.", "察其散搏, 以知遠近", "其色散, 駒駒然, 未有

57)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176.

58)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95.

聚. 其病散而氣痛, 聚未成也.", "女子在于面王, 爲膀胱子處之病. 散爲痛, 摶爲聚. 方員左右, 各如其色形.", "以五色命五臟, 靑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59]이라 하였으니 病理의 五色을 사용하여 女子 疾病의 病邪 定性, 病臟 定位를 판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病邪는 黃赤色이 나타나는 것은 風邪이고, 白色이 나타나는 것은 寒邪이다. 病臟에 있어 色이 靑한 것은 病이 肝에 있고, 色이 赤한 것은 病이 心에 있으며, 色이 白한 것은 病이 肺에 있고, 色이 黃한 것은 病이 脾에 있으며, 色이 黑한 것은 病이 腎에 있는 것이다. 形態의 散摶을 사용하여 病程의 新久, 病氣의 結否를 판단한다 하였으니 病色이 散在한 것은 病程이 비교적 짧고 氣가 아직 結實되지 않았으며 氣痛의 病임을 설명하는 것이며, 病色이 摶聚한 것은 病程이 비교적 길고 積聚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位置의 左右는 病患이 신체의 좌측에 있는지 혹은 우측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病色이 나타나는 곳이 病患側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종류의 診斷法은『內經』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논술에서는 극히 적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저서 중에도 이를 계승 발전시킨 바가 아주 적다. 이런 까닭에『內經』時代부터 의사들의 임상경험을 총결하였다고 확정짓기는 어려우며, 또한 당시에는 모종의 철학적 개념이 이용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內經』에 나타난 婦人科 疾病의 治療

『內經』은 이론 전문서적으로 治療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治療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일련의 구체적인 湯藥과 鍼灸治療 및 치료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협조 방법들도 논술되어 있다.

첫째, 治療原則이다.『素問·六元正紀大論』에 "黃帝問曰 : 婦人重身, 毒之何如? 岐伯曰 : 有故無殞, 亦無殞也. 帝曰 : 願聞其故何謂也? 岐伯曰 : 大積大聚, 其可犯也, 衰其太半而止, 過者死."[60]라 하여 婦女의 妊娠期間에는 治療에 주의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이 시기에 大積大聚의 實證이 있다면 毒性이 있거나 혹은 峻猛한 약물로 攻邪하여야 하는데 이 때는 懷孕의 정황을 살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좋아지는 정도를 파악하여 양이 과해서도 안된다 하였다.『靈樞·五禁』에서는 "新産及大血之後 …… 皆不可寫."[61]라 하여 産後病의 治療禁忌를 제시하였으니 産後는 血液이 虧虛해 질 때인데 다시 瀉下하면 津液을 더욱 상하게 하여 變症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靈樞·水脹』에서는 腸覃과 石瘕를 치료하는 기본 법칙으로 '可導而下'를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治療原則은 후세 婦人科 臨床에서 오래도록 변치 않고 계승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많은 治法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湯藥治療이다.『內經』에는 治療湯藥이 매우 적고, 藥物組成, 合藥方法, 服藥方法

---

59)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88.

60)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501.

61)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99.

이 완벽하게 서술된 複方으로는 단지 四烏賊骨一蘘茹丸이 있으니 이 方은 바로 婦人科 疾病 중 血枯經閉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方을 언급한 『素問·腹中論』에서는 "帝曰 : 治之奈何? 復以何術? 岐伯曰 : 以四烏賊骨一蘘茹二物幷合之, 丸以雀卵, 大如小豆, 以五丸爲後飯, 飮以鮑魚汁, 利腸中及傷肝也."라 하여 이 方의 작용이 補肝血, 健脾運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方의 組成 및 合藥, 服藥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합리적임을 알 수 있으니 당시의 婦人科 疾病을 치료하는 수준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鍼灸治療이다. 『素問·骨空論』에서는 督脈病의 不孕에 대한 鍼灸治療를 말하고 있으니 "督脈病治督脈, 治在骨上, 甚者在臍下營."[62]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經絡取穴의 원칙(督脈病은 督脈을 치료한다 하면서 구체적 腧穴處方을 말하였다.)이 있으니 曲骨과 陰交穴이다. 『內經』에서는 鍼灸治療를 비교적 중시하여 鍼灸理論과 治療를 논한 篇章이 적지 않지만 婦人科 疾病에 대한 논술에서는 鍼灸治療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이러한 예는 비교적 전형적인 범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치료를 하지 않고 스스로 낫기를 기다렸다. 『素問·奇病論』에는 子喑을 따로 치료하지 않고 스스로 낫기를 기다리는 처리법이 제시되어 있으니 "帝曰 : 治之奈何? 岐伯曰 : 無治也, 當十月復."[63]이라 하여 이 병은 妊娠晩期에 胞中胎兒가 腎脈의 氣血運行을 阻碍함으로 인해 腎氣가 舌本에까지 상승하지 못하여 不能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 스스로 낫게 되니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이러한 치료는 대다수의 질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일종의 처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볼 때 비록 매 종류의 치료예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범례로 삼을 수 있으며, 당시의 치료수준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內經』에 논술된 여러 가지 治療原則은 因人因地因時制宜, 治病求本, 扶正祛邪, 陰陽平衡, 因勢利導 등으로 총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婦人科 疾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結　論

先秦時代의 婦人科疾患에 대하여 硏究하여 얻은 結論은 아래와 같다.

1. 婦人科 疾病은 甲骨文卜辭에 최초로 難産과 乳癰이 기록되었지만 주로 難産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疾病의 診斷, 處理 및 豫後는 모두 神靈의 계시에 의존하고 있어 신비주의적 巫術 요소가 강하였다.

---

62)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321.

63)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259.

2. 西周時代의 詩歌集인 詩經에 기록된 婦人科 疾病으로는 無子와 難産이 있었지만 難産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無子의 처리는 巫術의 힘을 빌렸다.

3. 先秦時代에도 解剖術에 대한 기록이 보여 腹部 切開를 통한 出産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주로 難産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偉人이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神話的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의학서적에 婦人科 疾病이 최초로 기재된 것은 馬王堆醫書 중 五十二病方으로 여기에는 현대의 破傷風에 해당하는 嬰兒索痙이 기록되어 있으며, 治療로 外治法의 기록은 보이지만 內治法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또한 胎産書에서는 妊娠과 出産의 生理와 衛生, 胎兒의 性別을 파악하는 방법을 논술하였다.

5. 內經에 이르러 月經病, 帶下病, 妊娠病 및 婦人科 雜病 등의 病名, 病因, 症狀 및 治療에 대한 論病模型의 체계를 이루었으니 이는 후세 婦人科 疾病의 표현양식 뿐만 아니라 臨床 各科疾病의 표현양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6. 內經에서는 婦人科 疾病의 病因으로 비로소 鬼神을 언급하지 않고 病因을 객관적으로 탐색하였으니 外因은 주로 天人相應과 관련하여 氣候變化의 致病作用을 강조하였고, 內因은 臟腑經絡 이론과 관련하여 肝心脾腎 및 任督二脈의 機能失調를 강조하였으며, 이외에도 房勞損傷 및 情志失調를 중시하였다. 情志失調는 비교적 心의 機能失調를 강조하였으니 이는 후세에 肝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으며, 房勞太過하면 肝이 상한다고 한 점은 후세에 腎이 상한다고 한 것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7. 內經에서는 婦人科 疾病의 診斷에 있어 症狀의 세밀한 서술과 함께 體徵을 검사하였고, 望聞問切 四診의 合參을 통하여 豫後를 推斷하였으며, 症狀을 대비하여 鑑別診斷을 시행하고 面王의 望診을 시행하였다. 치료에 있어서는 '新産及大血之後'에는 '不可瀉'라는 治療禁忌를 제시하였고, 腸覃과 石瘕에는 '可導而下'를 제시하였으며, 湯藥治療와 鍼灸治療를 사용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參 考 文 獻

1. 郭沫若 : 殷契粹編, 北京, 科學出版社, 1965. p. 64.
2. 馬繼興 :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369.

3. 明·萬全 : 『萬氏女科』, 『萬密齋醫全書』本參照, 卷3, 淸·忠信堂刻本.
4. 『毛詩正義』, 『十三經注疏』參照, 卷17, 世界書局, 1935.
5. 傅維康 主編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 24.
6. 『山海經』, 百子全書, 第一, 第二, 第五,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8.
7. 『拾遺記』, 百子全書參照, 第二,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8. 英·馬林諾夫斯基, 費孝通 譯 : 文化史, 北京, 中國文藝民間出版社, 1987, p. 57.
9. 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113.
10. 五十二病方,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參照,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368.
11. 『吳越春秋』, 『四部叢刊初編』卷6 參照, 上海, 商務印書館, 1934, p. 44.
12. 陰陽十一脈灸經,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參照,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13. 李經緯, 李志東 : 中國古代醫學史略,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2.
14. 李良松 : 甲骨文化與中醫學,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4, p. 85.
15. 林乾良 : 醫學文字源流論(一) — 疾病論, 中華醫史雜誌, 1984, 14(4) : 197.
16. 『周易正義』, 『十三經注疏』參照, 卷1, 世界書局, 1935, p. 19.
17. 淸·段玉裁 注 : 說文解字段注, 成都古籍書店, 1981, p. 189.
18. 淸·朱駿聲 : 說文通訓定聲, 武漢, 武漢市古籍書店, 1983, p. 392.
19. 『春秋左傳正義』, 『十三經注疏』本參照, 世界書局, 1935, 卷5.
20. 胎産書,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參照,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 780.
21. 漢·班固 :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59, p. 3966.
22. 漢·司馬遷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p. 1690.
23. 胡厚宣 : 殷人疾病考, 學思, 1943, (1)
24.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176.